

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산업은행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산업은행이 석유화학을 비롯 화학섬유, 면방, 제지, 시멘트, 전기로, 농기계에 반도체를 포함한 8개 업종의 신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산업은행은 1차 Big Deal 업종이었던 석유화학과 반도체 부문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8개 업종의 신빅딜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기한 7개 업종에 반도체를 포함한 내용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되 관련업계 스스로 구조조정 방안을 내기 어려운 부문은 정부가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고,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관련업계와 정부, 채권금융기관의 협의체 운영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석유화학 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1차 구조조정시 대림-한화의 NCC(나프타분해센터) 통합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대산석유화학단지 빅딜이 무산돼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현대석유화학을 삼성종합화학에 통합하거나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SK와 LG화학이 인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들리고 있다.

현대석유화학은 삼성종합화학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PE(Polyethylene)와 PP(Polypropylene) 등 합성수지 부문을 SK와 LG화학에 넘겨야 하고 특히, 현대석유화학의 PE 및 PP 부문을 SK와 LG화학에 각각 통합시키는 방안을 채권금융기관들이 수용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LG화학 등 일부가 출자전환과 부채규모 조정을 전제로 통합의사를 표명하고 있음도 강력히 제기했다고 들린다.

화학섬유 부문에서는 생산기업간 통합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부실상태에 있는 새한, 금강화섬, 대하합섬을 각각 휴비스, 코오롱, 효성 등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새한은 휴비스에서 적극적인 인수여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미 새한의 필름사업을 인수한 새한도레이가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대하합섬도 단순한 제3자 매각보다 동종기업이 인수토록 해야 하며, 고합의 중국으로의 생산설비 이전·매각 계획도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석유화학, 반도체를 포함 8개 업종의 신빅딜 방안을 제기한 것은 8개 업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공급과잉에 놓여 있어 현 상태에서는 더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1차 빅딜 대상이었던 석유화학과 반도체 업종의 빅딜 성과가 미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과연 신빅딜 방안을 마련하고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조종할만한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국책은행으로서 그동안 방만한 경영 및 운영으로 막대한 국민세금을 축낸 산업은행이 IMF의 그림자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재벌 구조조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소가 하품할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1980년대말 현대와 삼성이 석유화학사업에 참여할 당시 설비투자 대출을 핑계로 막대한 국민세금을 연리 5-7%의 저리로 융자해준은 물론 삼성종합화학에는 지분까지 출자한 경력(?)이 있음을 석유화학산업 관계자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정치적 흥정에 따라 국가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한 산업은행이 이제는 현대의 PE 및 PP 부문을 LG화학 또는 SK에 넘기기 위해 출자전환 및 부채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하니 옛날 버릇은 역시 고치기 힘든 모양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현대석유화학의 부채를 안아줌으로써 국민세금을 동원해 현대-LG-SK의 배를 불러주어야 한다는 발상이 아니던가 말이다.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단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전자·현대건설·현대석유화학 등 현대그룹 3개 계열사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등 긴급수혈을 단행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현대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신규자금 1150억원을 SM 공장을 담보로 6개월간 지원하고 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설비관련 대출금을 6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대석유화학이 외자유치 및 자율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했다는 채권단의 설명이다.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국책 특혜은행인 산업은행이 필요한 것인지, 국민의 세금을 재벌들의 부채감축에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다.

〈화학저널 2001/3/19〉